

'문화예술 대안학교' 개교 앞둔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민철 사무국장



## “예술 통해 상처 치유… 미래 인재로 키웁니다”

“학교에 부적응한 중·고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감성과 끼를 살려 자신의 미래를 찾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민철(41)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국장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문화예술 대안학교’를 이끌어 소개했다.

광주시 서구 옛 국정원 부지에 있는 이 학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교하는 문화·예술 분야 대안학교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한다. 이 학교는 기존 교육청 위탁 대안학교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을 축으로 각종 체험 활동 등을 병행하는 것과 달리 순수하게 문화 예술 프로그램 위주 수업을 진행한다.

이 국장은 “학교를 중퇴한 학생의 경우 공부에 흥미를 잃었거나, 딱딱한 학교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기존 교육과정

에서 수용하지 못한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학교가 문화예술 대안학교”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은 인문학, 미디어, 전통예술, 미술, 연극, 음악을 위주로 자립생활교육, 지역봉사 활동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강사들은 지역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들로 구성됐다. 김호준 놀이매신명대표, 최명진 광주 독립영화 대표, 장명아 전통연희연구소 사무국장, 김용석 광주시립교향악단 팀파니 수석단원 등이다.

문화예술 대안학교는 올해 첫 신입생 15명을 모집한 뒤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한 뒤 자신의 진로를 찾을 때까지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그는 “학교 밖으로 밀려난 학생들이 대안학

교에서 문화예술을 배워 삶에 활력을 얻고, 지역 문화예술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은 한 달 30만원 가량인 학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곁들이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후원인을 소개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철 사무국장은 “지역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기관이나 민들로 물론 관공서, 기업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대안학교에는 중·고교 중퇴자로 14~19살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접수받아 2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062-375-1324~6.

/윤영기자 penfoot@kwanju.co.kr

영랑기념사업회장에 김승식씨



최근 김승식 강진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영랑기념사업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오는 2013년까지 2년동안 ‘영랑 문화제’ 등 영랑 시훈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게 된다.

김 회장은 “영랑의 시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강진 전역에 모란꽃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제10대 강진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강진읍 발전협의장을 맡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ju.co.kr

교수학습지원센터장에 염민호 교수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염민호 교수가 1일 기초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노열 교수의 후임으로 부임한 염민호 센터장은 기초교육원의 전신인 교육발전연구원

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담교수를 역임했다. 임기는 2014년 1월까지 2년간이다.

염 센터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인 교수의 강의역량 신장과 학생의 학습역량 발달 및 개발을 강조하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근거로 겸증받은 프로그램의 발전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모든 교육과 훈련은 영어로만 진행됐고 빠른 일정에 본토 생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 한국 공사 최정규 생도 美 공군사관학교서 1위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 미 공군사관학교에 위탁 교육생으로 파견된 최정규 생도(21·공사62기)가 위탁 첫 학기와 학업 성적 1위를 차지해 화제다.

2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미 공사에 입학한 최 생도는 1학년 1학기에서 평점 4.0 만점을 받았다. 미 공사 1학년 1천 66명의 생도 가운데 최고점수다.

대원외고(24회)를 졸업한 최 생도는 2010년 공군사관학교 62기로 입학, 2학년 재학 중 미 공사 위탁생으로 선발됐다. 영어권 국가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혀 없는 토박이다.

항공공학 전공인 그는 지난학기에 공학, 컴퓨터 공학, 행동과학, 미적분 등 5개 과목 15학점을 수강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은 영어로만 진행됐고 빠른 일정에 본토 생도들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영어에는 나름대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처음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애를 먹었다.

미 공사는 최 생도처럼 폴란드, 콜롬비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등 40여개국에서 100여명의 외국군 위탁 생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군사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학업과 군사 분야 평점 3.0 이상 생도에게 각각 수여하는 배지(Dean's pin, Commandant's pin)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최 생도는 “국가대표 사관생도라는 생각으로 졸업까지 남은 3년 반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호남대 박의수 교수 광주건축가회장 선출



호남대학교 박의수 교수(건축학과)가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교수는 지난 31일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돼 앞으로 2년간 광주건축가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는 광주·전남 건축문화 발전과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62년 창립됐다.

### 인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선진화기획관 정종재

### 내방

▲이재현(영산강유역 환경청장)씨 ▲이건철(전남발전연구원장)씨

## 노벨문학상 수상 폴란드 여류시인 쉼보르스카 태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여류 시인 비슬라바 쉼보르스카가 1일(현지시간) 태계했다. 향년 88세.

쉼보르스카는 이날 저녁 폴란드 남부 도시인 크라쿠프의 자택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숨을 거뒀다고 개인 비서인 미하엘 루시네크가 전했다.

라도슬라브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쉼보르스카의 죽음을 “폴란드 문학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로 묘사했다.

199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쉼보르스카는 도덕과 철학의 문제를 아름다운 서정시로 풀어내며 유럽 전후세대를 매혹시켰다.

그는 인생의 정신적인 측면이 정치를 비롯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을 견지하면서 인류와 사랑, 죽음 등 화두를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 속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5년 첫 시집 ‘나는 언어를 찾는다’를 출간하고 나서 대표작인 ‘피타니아 자다브네 소비에’(자문·自問)를 비롯한 많은 시집을 냈다.

1993년 작 ‘꽃과 시작’을 비롯해 스탈린에 대한 혐오감을 담은 ‘설인(雪人)에 대한 도전’, ‘첫눈에 반한 사랑’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1923년 7월 2일 폴란드 서부 포즈나니 인근 코르니크에서 출생, 크라쿠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한때 공산당원으로 활동하다 1966년 탈당했다. 이후 남부의 문화도시인 크라쿠프에서 집필에 전념해왔다. 또 1953년부터 1981년까지 폴란드의 지식인이 즐겨보는 잡지 ‘시시에 리테리키’에 ‘문학생활’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쉼보르스카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할 당시 스웨덴 한림원은 그를 “베토벤의 격정”을 결합시킨 “시의 모차르트”로 평가했다. 생전에 에언가로도 유명했다.

/연합뉴스

▲복부비만, 피부관리 설프무료 체험 =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맑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 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기후 조성 긴급수요 = 초대작가 이관주, 문예주 정형외과 4층 010-2982-5124.

▲2012학년도 광주노인지도자대학 26기생 = 심신이 건강하고 수업에 지장없는 65세 이상 남녀 선착순 60명 모집(무료). 29일(월)까지 입학원서·증명사진·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사단법인 대안노인회 광주시 연합회 062-652-7374.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 =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힐링 티아로마 회원 = 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광주유교대학 2년제 신입생 = 주요 학과목은 유교사상입문,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 선학순 50명으로 등록금은 10만원(학기당), 2월 28일 까지 원서접수. 유교대학사부처 062-672-7008, 6501.

▲수창초교 야구부 2·3·4학년 = 전국소년체전 광주 대표선발 010-6634-5300.

▲힐링 티아로마 회원 = 친구·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 상무지구 종은빌딩 4층 062-372-2023.

4488.

▲정용석씨 별세 수탁(광주광역시청 사회복지과 과장)·준택·남택씨 부친상=발인 4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백학기씨 별세 광현·상현씨 부친상=발인 3일(금)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20-6983.

▲김영실씨 별세 성훈·진정·윤정·윤선·윤희씨 부친상=발인 4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 광주 동구 구정발전 공로자에 표창장



광주 동구청(청장 유태명)은 최근 정례조회를 갖고 구정발전에 공이 큰 정기훈씨 등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동구청 제공)

### 농협 광주본부 정도·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지점장 등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도·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 서광중 김양석군 적십자사에 용돈모아 전달



광주 서광중 3학년에 재학중인 김양석군(16·원쪽)은 최근 1년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김필식)를 찾아 전달했다.

### 전남개발공사 ‘사랑의 장담그기’



전남개발공사는 2일 영암군 심호읍을 나불리 영산호 국립관광지내 영산자호텔에서 전남도내 사회적 기업인 ‘남도비색’과 ‘해들녘’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광주 북부경찰 학교폭력 피해사례 예방교육



광주 북부경찰(서장 하태우)은 지난 1일 우산동 우산신공아파트를 찾아 북한현지주민(새터민)과 자녀를 상대로 고충 상담과 학교폭력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하준성) 월례회=6일(월)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종친회

▲흥덕(흥성)장씨 종친회(회장 장웅환) 정기 이사회 및 신년하례=4일(토) 오전 11시 종친회 사무실(남구 월산동 1048-102) 062-526-6699.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